

【 해외금융뉴스: 유럽 】

Fortis, 은행·보험업무 매각 추진

- 베네룩스 3국의 은행·보험그룹인 Fortis그룹은 벨기에의 은행·보험 사업을 프랑스계 은행그룹인 BNP Pariba에게 145억 유로에 매각 추진 중이라고 밝힘.
 - 금번 매각은 실질적으로 재추진에 해당되는데 지난 2008년 12월에 벨기에 법정이 Fortis그룹(이하 Fortis) 매각에 대한 조사 명령과 아울러 Fortis 매각 상황을 주주의결에 부치도록 명령함으로써 중지된 바 있음.
 - 당시 네덜란드 정부는 자국내의 Fortis를 국유화하기로 결정하였고, 벨기에 정부는 이와 반대로 Fortis를 매각하기로 결정함.
 - 그러나 벨기에 Fortis의 BNP Paribas(이하 BNP) 매각 추진은 주주들의 동의 확보에 실패하여 결국 벨기에 법정으로부터 매각 중지 명령을 받게 됨.
- 5인으로 구성된 매각집행위원회는 2008년 10월의 매각 추진은 당시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해결 방법이었다고 밝히면서 금번 매각 재추진에는 몇 가지 사항이 재조정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힘.
 - 現 Fortis 매각집행위원회는 前KBC Bank 은행장, 前벨기에 금융감독위원장을 포함하고 있음.
 - 매각집행위원회는 보험사업 부문의 100%와 은행업무 75%를 BNP에 매각하려고 했던 초기 매각조건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함.
 - 즉, 금번 매각에는 건전성이 돋보이는 보험사업 부문은 75%만 매각하고, 보험사업 부문의 나머지 25%와 은행업무 부문의 나머지 25%는 벨기에 정부가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함.
 - 이에 대해 BNP는 현재 시기는 신용경색이 극심했던 초기 매각시기와는 상황이 차이가 있다는 점은 동의하나, 초기 매각조건 고수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밝힘.
- 또한 Fortis 매각집행위원회는 벨기에 내부에서 일고 있는 매각 반대 움직임에 대해 추후 정부가 계속해서 자본을 충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매각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함.
 - 매각집행위원회는 네덜란드의 자국내 Fortis의 국유화 조치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입장에서 볼 때 현명한 해결책이 아니었다는 의견을 피력함.
- 한편 Fortis는 2008년 9월의 금융위기시에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여 유럽 내에서 가장 먼저 정부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 받은 바 있음. (Financial Times 1/28)